

## ■ 2024년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정기대관 심의 총평

- 회의명 : 2024년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정기대관 심의 1차 연극
- 회의일시 : 2023년 12월 1일(금) 13:00~18:00
- 회의장소 : 대학로예술극장 지하 1층 회의실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정기대관 사업의 취지는 현장 창작자(단체)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예술 현장과 더불어 미래 극장의 목표를 함께 실천해나가는 데 있다. 이번 정기공모에는 총 291건의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이는 지난 2023년 정기대관 공모 접수 대비 97건(150%)이 증가한 수치다. 연극 장르에서는, 연극 131건을 포함해, 뮤지컬 9건, 다원 10건, 기타 10건, 행사 2건까지, 총 162건을 심의했다. 이중 다원과 기타, 행사 건에 대해서는 무용 장르 심의에서 채점한 결과와 평균값을 산정하여 최종 선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사전심의에서는 총 5인으로 구성된 심의위원들이 대관신청서와 세부사업계획서, 이외 공연대본 또는 스토리보드 등의 제출서류를 전수 검토했다. 대관 공모 시 공지되었던 기준대로, 창(제)작 계획의 적정성, 운영 계획의 적정성, 사회적 역할에 각 30%, 30%, 40%의 가중치를 부여하였고, 이후 심의회의를 통해 사전심의 결과 75점 이상인 신청 건을 집중적인 논의 대상으로 삼았다. 더불어 전체 극장 대관 가능 일수 중, 축제가 차지하는 비중을 30%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바, 이미 지난해 정기대관 공모에서 2개년 축제로 선정된 단체들의 행사 일수를 고려해 축제에 배정된 총 대관 일수를 최대한 맞추고자 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무엇보다,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이 지향하는 가치인, 기후 위기, 접근성, 창작자와 공연의 다양성, 안전한 창작환경 등의 영역에서 상호협력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창작자(단체)의 세부 계획과 사회적 역할 설정을 주요하게 검토했다. 특히 예술극장에 최초 진입하는 창작자(단체)를 위한 대관 선정 기준(20% 내외)이 마련된 만큼, 다양한 창작자들이 공모에 응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단체의 자치 규약 등을 이미 실천하면서 동시대 예술의 사회적 역할을 깊이 있고 폭넓게 고민하는 연극 현장의 실천들도 상당수 눈에 띄었다.

한편 축제 참여 등으로 인해, 한 단체의 서로 다른 두 작품이 최종 심의 단계에서 논의된 경우, 되도록 더 많은 단체가 극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후 축제의 세부 프로그램이 확정됨에 따라 선정을 조율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축제나 행사의 경우, 논의를 통해 그 운영 계획이 얼마나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지, 나아가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이 추구하는 가치와 어떻게 상생 관계를 구축하려 하는지 등을 확인하고자 했다.

이번 공모에서는 예년에 비해 접수 건수가 대폭 증가한 반면 대관 가능 일수에는 큰 변동이 없어, 최종 선정을 결정하기까지 매우 심도 깊게 개별 건들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심의 과정에서는 공연이 관객과 나누고자 하는 이슈가 미래 극장으로서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이 표방하는 바와 뜻을 같이 하더라도,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한 계획 등이 미흡한 경우는 우선순위로 고려하지 않았다. 공공극장을 이용하는 창작자들이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공모에 응하고 있는지, 나아가 동시대의 감수성을 얼마나 섬세하게 인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구현 가능한 계획을 제시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에서는 최근 이전에 비해 매우 폭넓고 다양한 스펙트럼의 공연들이 관객을 만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극장의 대극장, 소극장의 특수성이 여러 창작자(단체)의 작품과 어떤 맥락에서 만날 수 있을지, 극장과 현장 모두의 고민이 좀 더 구체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극장 정기대관 공모 심의에서는 공공 영역과 현장의 창작자(단체)들이 시대적 과제로서 기후 위기를 함께 고민하고, 안전한 창작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한 약속을 이행하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극장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연구와 공연제작 노력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 현장의 창작자(단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과 협력해 모두에게 열린 극장을 만들어갈 수 있길 기대한다.

심의위원 일동